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rimary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 사 신 유 림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Lecturer : Shin, Yooli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 과
Ⅳ. 논 의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the degree to which children are subjected to victimize by peers using a peer nomination scale and self-report. The subjects were 122 children in the fourth through sixth grades. About 7% were identified as extremely victimized group. Age and gender were not related with victimization scores. The inter-item correlations and item-total correlations of the peer nomination were high. The correlation of victimization scores measured by peer nomination and self report was significant. Children's victimization scor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ir aggression scores, which means victimized children were not homeogenous.

Ⅰ. 서 론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더 강한 아동이 더 약한 아동을 공격하는 행동의 결과이며(Olweus, 1991), 또래의 공격성에 의해 불안감, 불신감, 공포와 같은 인지, 정서상태가 유발되는 또래학대(peer abuse)의 한 유형이다(Kochenderfer & Ladd, 1996). 또래괴롭힘은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이 겪게 되는 단기적 및 장기적 부적응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

또래괴롭힘의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청소년 시기에 또래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을 받은 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낮으며(양원경, 도현심, 1999)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고 외로움을 느끼며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Blou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또한 이러한 아동들은 집중력을 손상되며 주의 산만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et al., 1998). Schwartz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과

부적응 행동사이의 인과론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아동들이 3, 4학년일 때와 2년 후 5, 6학년이 되었을 때 또래괴롭힘과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3, 4학년때 경험한 또래 괴롭힘은 그 당시의 주의력 결핍, 미성숙함, 의존적 행동, 비행적 행동 및 공격성과 같은 발달상의 문제를 초래하고 2년 후인 5, 6학년이 되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래괴롭힘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을 살펴 본 Olweus(1993)의 연구에서 아동기와 청소년 초기에 경험한 또래괴롭힘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본 결과 성인기에 심각한 부적응 상태는 보이지 않았으나 성인기의 우울증 성향과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래의 반복적인 괴롭힘에 노출되는 아동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년기와 청소년기를 비교해 볼 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Kochenderfer & Ladd(1996)의 연구에서 20.5%의 아동들이 중간에서 심한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은 11.6%,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5.4%로 청소년 초기에 비해 아동기에 2배 이상의 아동들이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Kochenderfer & Ladd, 1996).

따라서 또래괴롭힘이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또래집단내에서 소수의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Schwartz et al.,(1998)은 여아보다 남아들이 또래 공격성의 목표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자가 남아들이 여아보다 비율이 높다고 보았으나 Hoover, Oliver, & Hazler(1992)의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동의 성에 따라 괴롭힘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남아들은 또래로부터 직접적이고 외현적인 행동에 의한 괴롭힘의 피해자이며 여아들은 직접적이기 보다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과 같은 간접적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Kochendenfer & Ladd, 199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유럽과 미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며, 서구와 우리 나라의 학교환경과 또래집단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아동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또래괴롭힘이란 왕따문제로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들이 겪게 되는 사회 정서적 차원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시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어지고 자발적인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는 시기로 이 때에 경험하는 또래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급에서 일어나는 또래괴롭힘의 피해자 아동의 범위를 파악해보고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행동관찰법, 교사보고법, 또래보고법과 자기보고법의 4가지로 각 연구방법은 장단점이 있다. 직접행동관찰법 경우 관찰자의 존재 자체가 가해자 아동들의 공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연구자에 의한 관찰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Kochenderfer & Ladd, 1996). 교사에 의한 보고법은 교사가 학급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사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려는 동기로 인해 신뢰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또래집단내에서 정도가 심한 공격성이 발생되는 현장이 교사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적다. Perry et al.,(1988)의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학급에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였을 때 지명한 아동의 수에 많은 차이가 보였으며, 한 아동에게 귀인되는 괴롭힘의 항목의 수에서 뿐만 아니라 한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명하는 경우에도 교사에 따라 많은 개인차가 있었다. 이것은 교사들이 또래괴롭힘을 지각하는 역치(threshold)에 개인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또래에 의한 보고방법의 경우 또래집단은 학급 내에서 피해자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교사와 달리 괴롭힘이 발생되는 현장에 가장 잘 노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래 지명법은 개인이 아닌 또래의 집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얻어진 정보이므로 개별 평정자의 편견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방법은 피해자 아동 스스로가 괴롭힘을 지각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Perry et al.,(1988)연구에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괴롭힘의 피해자로 보고했으나 또래와 교사에 의해서는 피해자 아동으로 지명되지 않은 아동들이 있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동을 피해 의식적 아동(paranoid children)으로 명명하고 연구차원에서는 흥미있는 집단이나 신뢰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또래지명법을 사용하여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고 이 측정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해봄으로써 앞으로 또래 괴롭힘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정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또래괴롭힘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또래괴롭힘의 피해자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피해자 아동들은 가해자로부터 공격성을 유발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화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또래의 공격적 행동을 효율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지속적인 피해자가 된다 (Perry, Williard, & Perry, 1990). 예를 들어 쉽게 울고, 불안감을 보이며, 유머감각이 결핍되어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 비효율적이다(Perry, Williard, & Perry, 1990). 특히 가해자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공격적인 행동이 보상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피해자 아동의 행동특성에서의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 괴롭힘과 공격성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못하며 서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또래괴롭힘의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유약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괴롭힘과 공격성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Schwartz et al.,(1998)의 연구에서 또래지명방법을 통해서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과 공격적인 아동을 학급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지명된 빈도로 괴롭힘과 공격성 점수를 계산해 본 결과 부적인 상관관계($r=-.46$)가 있었으며 이것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피해자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수동적이고 복종적 행동 특성이 괴롭힘의 목표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Olweus(1978)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그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피해자 아동집단을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와 유도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구분하여 행동특징을 기술하였다. 수동적 피해자는 공격적인 성향이 없으며 가해가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동으로 불안감과 위축된 행동특징을 보였다. 반면에 유도적인 피해자는 공격적 성향을 지닌 아동들로 다른 아동을 놀리거나 화나게 함으로써 또래와 사이에 긴장을 야기하며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기술하였다.

다른 견해에 따르면 Dodge & Frame(1982)은 아동기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은 또래로부터 또 다른 공격성과 적개심을 유도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피해자 아동이 가해자 아동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것이 피해자 아동의 공격성일 수 있으므로 공격성과 괴롭힘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paragaph의 시작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괴롭힘과 공격성의 관련성을 규명해봄으로써 피해자 아동의 행동특성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연구목적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아동의 학년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또래 지명법은 또래괴롭힘의 측정에 적합한가?
셋째,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I시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4, 5, 6학년별로 각 한 학급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년별 피험자 수는 4학년 44명(남아 23명, 여아 21명), 5학년 39명(남아 20명, 여아 19명), 6학년 39명(남아 23명, 여아 16명)으로 총122명이다. 본 연구는 학급의 또래에 대하여 서로가 잘 파악하고 있는 11월말에 아동들의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또래괴롭힘과 공격성은 Schwartz et al.,(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지명법과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각 학급에서 아동들에게 괴롭힘과 공격성을 측정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괴롭힘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5개로 구성되며 각 질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3명의 이름을 쓰도록 되어있고 각 질문에 대하여 같은 아동의 이름을 써도 무방하다(예: 우리 반 아이들에게 자주 맞거나 아이들이 밀어서 넘어지는 사람 3명의 이름을 쓰세요).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롭힘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된다. (예: 우리 반 아이들 중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미는 사람 3명을 쓰세요) 각 아동별로 괴롭힘의 점수는 5개의 질문을 통해 또래로부터 받은 지명의 빈도를 합산하여 계산되었고 이 점수는 각 학급별로 표준화점수로 환산되었다. 공격성도 괴롭힘점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인 자기보고법은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얼마나 빈번하게 또래가 괴롭히는 일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Likert의 4점 척도에 따라 1점에서 4점으로 계산되었다. 자기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또래 괴롭힘의 점수는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최종점수가 산출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은 또래지명법과 자기보고법에 의한 괴롭힘 점수의 분포와 빈도를 계산하고 학년과 성에 따른 괴롭힘 점수의 차이를 ANOVA를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는 또래지명법의 문항간 상관관계(inter-item correlations)를 coefficient alpha로 계산하고 문항-총합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s)를 산출하였다. 또한 또래지명법과 자기보고법사이의 관련성을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은 또래지명법을 통해 계산된 또래 괴롭힘과 공격성 점수사이의 관련성을 Pearson correlation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또래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또래 괴롭힘의 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점수의 평균은 10.41이고 표준편차는 17.67이며, 괴롭힘 점수의 범위는 0-122점이었다. 점수의 전체적인 분포는 정적으로 편포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중 소수의 아동들이 높은 또래 괴롭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erry et al.,(198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평균에서 1SD 이상의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피해자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점수분포에서 기준점은 28점으로 28점 이상을 받은 아동의 수는 7%인 9명으로 학년별로 각 3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아 3명, 여아가 6명으

로 나타났다.

또래 지명법에 의하여 측정된 또래괴롭힘 점수의 학년과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성별과 학년에 따라 또래 괴롭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은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상관없이 또래집단 내 소수의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보고법에 의해 또래괴롭힘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본 평균은 1.39 표준편차는 .43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이란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Likert 4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이상의 아동을 괴롭힘의 피해자 아동으로 규정하고 그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7%인 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아가 6명, 남아가 3명이었으며, 학년별로 분포를 보면 4학년이 4명, 5학년이 5명이나 6학년 아동들 중 빈번하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스스로 보고한 아동은 없었다. 또래괴롭힘 점수를 학년과 성별에 따라 ANOVA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래지명법의 문항간의 coefficient alpha를 계산해 본 결과 .89로 나타났다. 문항-총합의 상관관계는 (item-total correlations)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표 2〉에 의하면 상관계수는 .87-.92로 각 문항 모두 유사한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지명법의 신뢰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 측정하는 또래지명법과 자기보고법의 관련성을 분석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r=.34$, $p<.001$) 있었다. 그러므로 또래지명법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의 괴롭힘을 측정하는 타당도를 지닌 측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래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또래괴롭힘과 공격성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r=.12$, n.s.)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또래괴롭힘 점수 분포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많은 9명의 아동의 공격성 점수를 살펴보면 공격성 점수의 평균에서 1SD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은 5명으로 이 아동들은 공격성이 높으면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4명의 아동은 괴롭힘의 정도는 높으나 공격적인 성향이 낮은 아동으로 나타났다.

〈표 1〉 학년과 성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차이

N=122

변인	집 단	M	SD	F
성	남 아 (n=66)	7.79	10.06	.62
	여 아 (n=56)	13.66	23.30	
학년	4학년 (n=44)	10.36	18.96	.96
	5학년 (n=39)	8.23	12.50	
	6학년 (n=39)	12.64	20.58	

IV. 논 의

본 연구는 또래 지명법과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당하는 아동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래지명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고 또래 괴롭힘 피해자 아동의 행동특성을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통해

〈표 2〉 또래지명법에 문항-총합 상관관계(Item-total correlations)

문 항	상관계수
1. 우리 반 아이들에게 자주 맞거나 아이들이 밀어서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0
2. 우리 반 아이들에게 자주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2
3. 우리 반 아이들이 자주 흉을 보거나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9
4. 우리 반 아이들에 의해 재미있게 놀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받고 방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0
5. 우리 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때 잘 끼워주지 않아 같이 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7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또래지명법에 의한 또래괴롭힘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7%인 소수의 아동이 괴롭힘 정도가 높은 피해자 아동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기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피해자 아동의 비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와 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lweus(1978)의 연구에서 보고된 17%와 Kochenderfer & Ladd(1996)의 연구에서 보고된 18%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에 따라 사용한 측정방법의 차이나 검사 실시시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법은 각 문항에 대하여 3명을 지명하도록 인원에 제한을 두었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지명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2학기에 실시하였으며 또래괴롭힘을 1학기에 실시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또래집단과 학교환경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로 비교문화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괴롭힘 점수는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또래지명법에 의해 측정된 피해자 아동의 9명은 학년별로 3명씩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기보고법에 의해 측정된 9명의 아동에는 6학년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6학년 아동들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받는다고 지명되었으나 스스로 이를 부인하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것은 자기보고법을 사용하여 또래괴롭힘을 측정할 경우 이러한 소수의 아동에 의해 신뢰롭지 못한 반응이 얻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또래 괴롭힘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Perry et al.,(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래괴롭힘을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Perry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괴롭힘의 전체 점수를 가해자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밀거나 때리기)과 언어적 공격성(흉을 보거나 놀리기)으로 분류한 후 학년과 성차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학년이 어릴수록 두 가지 유형의 점수가 유사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언어적 공격성은 같은 수준이나 신체적 공격성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괴롭힘의 두 가지 유형사이의 차이는 남아에 비해 여아들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Crick & Grotpeter(1995)는 또래괴롭힘의 가해자가 보이는 공격성을 신체적이고 언어적 공격성과 같이 외현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다른 유형을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공격성은 또래관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며 피해자도 여아의 비율이 높았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언어적,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의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경우,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괴롭힘 유형의 차이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또래지명법의 문항간 상관관계, 문항-총합 상관관계 및 자기보고법과의 관련성을 또래지명법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래지명법을 통해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피해자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빈도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거나 아동이 기록한 일기와 같은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괴롭힘과 공격성 점수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점수의 분포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자 아동의 집단을 괴롭힘의 점수가 높으면서 공격성 측면에서 많은 지명을 받은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Olweus (1978)연구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Perry et al., (1988)의 연구에서 피해자집단을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와 유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자 아동들은 유사한 행동특성을 지닌 동질적인 집단이기 보다 이러한 아동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피해자가 되는 서로 다른 이유로 인해 가해자 아동의 목표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성이 높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자신보다 약한 아동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이 성공적일 수 있으나 더 강한 아동들의 공격성을 유발시켜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공격적인 성향이 없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들은 가해자 아동의 요구에 승복하고 위축적인 태도를 인해 가해자의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은 또래집단에서의 거절되는 정도와 친구관계의 형성에서도 구분된다. 공격적인 피해자 아동들은 또래집단에서 거절되는 정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Schwartz et al., 1998), 비공격적인 피해자는 정상아동의 집단과 같이 친구가 있으나 공격적인 피해자는 친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odges, Malone, & Perry, 1997). 친구관계가 지니는 여러 기능 중 한 명 이상의 친구관계는 아동을 또래의 괴롭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며 친구가 없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빈번히 괴롭힘을 당한다(Bukowiski et al., 1995; Hodges, Malone, & Perry, 1997). 그러므로 공격적인 피해자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의 거절 및 친구관계의 부재로 인한 부가적인 위험에 노출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개입방법도 이러한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4-6학년 별로 한 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급우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학기말에 실시하였으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형성된 시기이므로 괴롭힘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이며 괴롭힘의 지속성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또한 또래괴롭힘을 연속적 변인으로 개념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므로 유목화 변인으로 가정하고 피해자 집단과 비피해자 집단으로 비교 분석할 경우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1, 223-237.

2)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3)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 (1995). Measuring friendships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471-484.

4)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5) Dodge, K. A., & Frame, C. L. (!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6*, 710-722.

6)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 Psychology, 33*, 1032-1039.

7)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8)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9) Olweus, D. (1978). *Aggressive in the Schools: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here.

10)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1)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arlbaum.

12) Perry, D. G., Kusel, S.,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 807-814.

13) Perry, D. G., Willard, J. C., & Perry, L. 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14)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15) Schwartz, D., Mcfadyen-Ketchen, S., Dodge, K., Petit, G., & Bates, J.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87-99.